

<심사 총평>

이번 시민 연극제 예선에 참가한 작품은 전국에서 총21단체에서 응모했습니다.
그중 다섯분의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8개 단체가 선정되어 7월에 있을 부산 본선에서 열띤 경연을 치루게 되었습니다.
심사에서 중점을 둔 기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시민 연극의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연극제작에 임할 것인가?

-기본 정신이라 함은 오늘날 우리 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꾸밈없이 어떤 형식으로든 연극의 실제 제작속에 투영할 것인가?

2. 우리가 아는 엘리트 연극과의 변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?

-기성연극의 모방 등을 어떻게 배제하고 투박하지만 글들만의 이야기로 어떻게 꾸민 것일까?

3. 우리들의 일상에서 의식없이 스쳐지나가는 생활속의 자화상들을 작품속에 얼마나 녹일수 있을까?

-작품 주제나 주장이 철학적이거나, 심미적이거나, 예술적인 것을 소리 높여 주장하지 안타라도 일상속의 우리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어떤 방법으로 표현 할 것 일가?

이 세가지를 중심에 놓고 열띤 토론을 통해 작품을 선정하였음 밝히는 바입니다.